(재)대한성서공회

「성경원문연구」 56 (2025. 4.), 153-183
ISSN 1226-5926 (print), ISSN 2586-2480 (online)
DOI: https://doi.org/10.28977/jbtr.2025.4.56.153
https://dbpiaone.com/bskorea/index.do

JBTR
JOURNAL OF BIBLICAL TEXT RESEARCH

『성경전서 개역한글판』과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속 옛 말투 연결어미의 변화

최성규*

1. 머리말

『개역한글』과 『개역개정』은 1911년 판 『셩경젼셔』(흔히 『구역』으로 알려짐)과 1938년 판 『셩경 개역』(이하 『개역』)의 전통을 이어받은 국역 성경이다. 한국 교계에서 가장 널리 읽히며 권위를 인정받아 온 중요한 역본이자, 한 세기가 넘는 역사가 담긴 만큼 고풍스러운 표현이 많다는 특징을 지닌 역본이다.

고풍스러운 표현은 젊은 세대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되기도 하지만, 진지하고 품위 있는 문체를 형성한다는 장점이 되기도 한다. 오늘날의 언어로 이해하기 쉽게 번역한 『새번역』(예전의 『표준』)이 나온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개역개정』이 여전히 교계에서 가장 널리 읽히며,[1] 새로 작사·작곡되는 기독교 음악(CCM, 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의 가사에서 하소서체가 나타난다는 점에서도, 고풍스러운 표현이 지닌 특유의 기능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개역』 계통의 역본에서 고풍스러운 문체를 이루는 여러 요소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동사의 옛 말투 활용어미(conjugation ending)이다. 교착어

* 서울대학교에서 국어사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선임편찬원. ginparam@nate.com.

1) 물론 『새번역』과 『개역개정』의 차이를 문체 하나로만 단순하게 판단할 수는 없다. 교단에서 예배용으로 인정을 받았는지, 교계에서 논란이 있었는지도 중요한 문제이겠으나, 이 글에서 그러한 문제까지는 다루지 않는다.

인 국어에서 활용어미는 거의 모든 문장마다 들어가므로 성경 전체로는 수백 수천 번씩 나타난다. 물론 일부 옛 어휘도 고풍스러운 문체를 이루는 요소가 되기는 하겠으나, 활용어미만큼 자주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활용어미 중에서도 종결어미와 연결어미는 상황이 같지 않다. 『개역』 계통의 역본에서 종결어미 '하소서'를 '하십시오'로 고치거나 '하느니라'를 '한다'로 고치는 것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2] 그러나 연결어미 '하신대'를 '하시니'로 고친 것은 『개역개정』이 종전의 『개역한글』보다 나아진 점으로 소개된 바 있다.[3]

이 글에서는 『개역한글』과 『개역개정』 속 옛 말투 연결어미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개역한글』과 『개역개정』의 본문 전체(창세기~요한계시록)를 대상으로 연결어미의 수량 변화를 정리하고, 그러한 변화의 특징도 짚어보기로 한다.

2. 논의 대상과 용례 수

'옛 말투' 또는 의고체(擬古體, archaism)는 옛날에 쓰던 말의 방식이나 어조 등을 가리킨다. 그 기본 개념은 일반 상식으로도 이해할 만한 것이나, 어디까지가 옛 말투에 속하는지 경계선을 정확히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사람마다 예스럽다고 느끼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과 『고려대한국어대사전』의 뜻풀이를 판단 기준으로 삼겠다. 뜻풀이 안에 '예스러운/예스럽게', '근엄한/근엄하게', '장중한/장중하게', '옛 말투'라는 말이 들어 있으면 논의 대상에 포함한다.[4] 그에 덧붙여서, 국립국어원의 『우리말샘』에서 '옛말' 자격으로 분류한 것도[5] 논의 대상에 포함한다.

한편, 사전에는 여러 어미들의 이형태(allomorph)를 각각 하나의 항목으로 실어놓고 있다. 그러나 이형태 관계에 놓인 항목들은 사실 별개의 존재가 아니다. 예컨대 '-ㄹ진대'와 '-을진대'는 문법 기능이 똑같은 어미이며,

---

2) 종결어미를 현대어 '-다'로 바꾸면 외면이나 반발이 있으리라는 예측이 있다. 전무용, "『개역개정』 성경 개정을 위한 문체 논의", 「성경원문연구」 50 (2022), 228.

3) 민영진,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이렇게 달라졌다』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3), 57.

4) 두 사전 중에 어느 한 쪽이라도 그러한 뜻풀이를 넣었다면 논의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예컨대 '-나니'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만 '근엄하게'라고 풀이하였고, '-(으)매'는 『고려대한국어대사전』에서만 '옛 말투'라고 풀이하였다.

5) 『표준국어대사전』의 초판(1999)에는 옛말도 실려 있었으나, 2019년에 사전을 개편하면서 옛말, 방언, 북한어를 제외하였다. 제외된 말들은 『우리말샘』으로 옮겨졌다.

출현 환경만 다를 뿐이다.[6] 또한 『개역한글』에서는 이들이 '-ㄹ찐대', '-을찐대'로 적히기도 하였으나 이들 또한 표기만 다를 뿐 동일한 어미이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경우를 하나의 형태소(morpheme)로 묶어서 처리하겠다.

또한, 원래는 한 형태소의 이형태 관계였으나 현대 사전에서는 등재 여부가 갈리는 일도 있다. 예컨대 '-거늘'과 '-어늘'은 15세기 국어에서 이형태 관계에 있던 어미였다.[7] 그러나 '-어늘'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빠져 『우리말샘』에서만 '옛말' 자격으로 실리게 되었고, '-거늘'만 현대 사전에 남게 되었다.[8] 현대 사전의 처리를 따른다면 이들 둘은 별개로 갈라야 하겠으나, 『개역』 계통의 역본에서는 두 가지가 모두 쓰이므로 '-어늘'만을 사어(死語)처럼 떼어내기 어렵다. 이 글에서는 옛말에서 이형태 관계였던 경우도 하나의 형태소로 묶어 처리하되, 구별이 필요할 때에만 설명을 붙이기로 한다.

그 밖에, 연결어미 앞에 선어말어미가 붙은 것을 사전에서 별도의 항목으로 실은 경우가 있다. 예컨대 '-러니'와 '-(으)ㄹ러니'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따로따로 실려 있다. '-(으)ㄹ러니'는 15세기 국어에서 '-(으)리러니'였던 것인데, 이는 '-러니' 앞에 선어말어미 '-(으)리-'가 더 붙은 것이므로 결국 '-러니'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경우도 함께 묶어 처리한다.

이러한 기준에 맞추어 『개역한글』과 『개역개정』의 옛 말투 연결어미를 정리하고 용례 수를 계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 『개역한글』의 옛 말투 연결어미

어미 (대표형태)	수량	어미 (이형태/이표기)	수량	어미 (결합형)	수량	합계
거늘	346	어늘	37	(으)리어늘, 여늘	5	388
거니와	253	어니와	19	(으)리어니와, 여니와	1	273

6) '-ㄹ진대'는 '이다'의 어간, 받침이 없거나 'ㄹ'인 용언의 어간, 어미 '-(으)시-' 뒤에 붙는다. '-을진대'는 'ㄹ'을 제외한 받침 있는 용언의 어간, 어미 '-었-' 뒤에 붙는다.

7) 본래는 [확인] 기능의 선어말어미 '-거/어/나-'가 들어있던 것이다. 이 선어말어미는 자동사 및 형용사 뒤에 '-거-', 타동사 뒤에 '-어-', '오다' 뒤에 '-나-'가 붙는 식으로 출현 환경이 구분되었다. 그 밖에, '-거-'는 [j]로 끝나는 이중모음이나 [l] 뒤에서 'ㄱ'이 약화되어 '-어-'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기문, 『국어사개설』 (서울: 태학사, 1998), 174; 고영근, 『표준 중세국어 문법론』 (서울: 집문당, 2020), 300-301.

8) 『표준국어대사전』의 '-거늘' 뜻풀이에는 옛 말투 관련 내용이 없으나, 『고려대한국어대사전』에는 '옛 말투'라는 표현이 들어있다.

어미 (대표형태)	수량	어미 (이형태/이표기)	수량	어미 (결합형)	수량	합계
관데	0	관대	34			34
나니	1,032					1,032
노니	606					606
러니	3			(으)ㄹ러니	2	5
어든	9			(으)려든	0	9
(으)ㄴ대	95					95
(으)ㄴ즉	876					876
(으)되	5,270			로되	50	5,320
(으)ㄹ새	4	(으)ㄹ쌔	122			126
(으)ㄹ지나	0	(으)ㄹ찌나	1			1
(으)ㄹ지니	17	(으)ㄹ찌니	299			316
(으)ㄹ진대	4	(으)ㄹ찐대	64			68
(으)매	1,616					1,616
(으)사	912					912
합계						11,677

<표 2>『개역개정』의 옛 말투 연결어미

어미 (대표형태)	수량	어미 (이형태/이표기)	수량	어미 (결합형)	수량	합계
거늘	369	어늘	3	(으)리어늘, 여늘	0	372
거니와	267	어니와	1	(으)리어니와, 여니와	0	268
관데	0	관대	0			0
나니	990					990
노니	591					591
러니	1			(으)ㄹ러니	0	1
어든	5			(으)려든	0	5
(으)ㄴ대	39					39
(으)ㄴ즉	819					819
(으)되	5,962			로되	50	6,012
(으)ㄹ새	122	(으)ㄹ쌔	0			122
(으)ㄹ지나	1	(으)ㄹ찌나	0			1
(으)ㄹ지니	308	(으)ㄹ찌니	0			308
(으)ㄹ진대	61	(으)ㄹ찐대	0			61

어미 (대표형태)	수량	어미 (이형태/이표기)	수량	어미 (결합형)	수량	합계
(으)매	1,578					1,578
(으)사	867					867
합계						12,034

『개역한글』에는 16가지 옛 말투 어미가 나타나며, 전체 용례 수 합계는 11,677개이다. 『개역개정』에서는 종류가 하나 줄어들어 15가지 옛 말투 어미가 나타나는데, 전체 용례 수 합계는 조금 늘어나서 12,034개이다. 전체 합계만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면 『개역개정』에서 고풍스러움이 더 강화되었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이는 아래 3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위 표에는 들어가지 않은 옛 말투 어미도 있다. 『표준국어대사전』과 『고려대한국어대사전』에는 실려 있더라도 『개역한글』과 『개역개정』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글의 논의 대상에서 벗어난다. 그러한 이유로 제외한 어미는 총 18가지이며, 각각 다음과 같다. '-거니/어니', '-거드면', '-고져'[9], '-노라니', '-노라니까', '-노라면', '-도소니', '-런들', '-어드란', '-언마는', '-오리니(1인칭 주어와 호응)'[10], '-(으)ㄴ댄', '-(으)ㄴ즉슨', '-(으)ㄹ사', '-(으)ㄹ시', '-(으)ㄹ작시면', '-(으)ㄹ지면', '-(으)ㄹ진들'. 또한, 사전에는 연결어미로 나와 있으나 『개역한글』과 『개역개정』에서 사실상 종결어미로 쓰인 '-ㄴ지라'는 이 글의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11]

다음 3, 4, 5장에서는 각 연결어미마다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3장에서는 수량이 늘어난 어미를 살펴보고, 4장에서는 수량 변화가 적은 어미, 5장에서는 수량이 크게 줄어든 어미를 살펴보겠다.

9) '-고져'의 현대 표준형인 '-고자'는 『개역한글』에서 280회, 『개역개정』에서 298회 나타나므로, 단순히 사라졌다고만 할 수는 없다. 참고로 『개역』(1938)에서는 "일즉이 니러나 써나**고져** 하매"(삿 19:8)"네게 쑤**고져** 하는 쟈의게"(마 5:42), "네가 낫**고져** 하나냐"(요 5:6) 등 '-고져'가 여러 곳에서 쓰인 바 있다.

10) [공손] 기능의 선어말어미 '-(으)오-'에 연결어미 '-(으)리니'가 결합하여 생긴 '-오리니'와는 다른 어미이다.

11) 일부 사례는 연결어미와 종결어미 중 어느 쪽으로 보나 문맥상 자연스럽다. 다만 이 글에서는 확실히 연결어미로 쓰인 것만을 논의하기로 한다.

3. 수량이 늘어난 어미: -(으)되

이 글의 논의 대상 가운데 수량이 늘어난 연결어미는 '-(으)되' 하나뿐이다. 이 어미의 용례 수는 5,320개에서 6,012개로 692개나 늘어났다. 그러나 그 대부분은 더 오래된 옛말 '가라사대'가 '이르시되'로 바뀐 결과이다.[12] 따라서 고풍스러운 말투가 더 강화되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개역한글』에서 '가라사대'는 총 782회(각주 제외) 나타났었다. '가라사대→이르시되'의 변화를 제외하면 오히려 조금 줄어든 것이다.

연결어미 '-(으)되'가 겪은 변화는 크게 인용 구문과 그 밖의 구문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3.1. 인용 구문의 '-(으)되'

연결어미 '-(으)되'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개역한글』과 『개역개정』에서는 인용 구문에 쓰인 용례가 특별히 많다. 인용 구문은 대부분 [인용동사+인용구+'하-']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용동사의 끝에는 '-(으)되'가 가장 많이 쓰인다. 물론 '-기를'[13]처럼 예스럽지 않은 표현도 상당수 쓰인다. 따라서 『개역한글』과 『개역개정』의 인용 구문에서 '-(으)되'의 수량과 '-기를'의 수량을 세어보면 변화의 경향을 어느 정도 짚을 수 있다.

인용동사에 속하는 말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 글에서는 편의상 용례 수가 100개 이상이었던 '말하다', '말씀하다', '이르(시)다', '대답하다', '고하다' 및 '가라사대', '가로되'까지 포함한 일곱 단어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 인용동사에 쓰인 연결어미(각주에 쓰인 것은 제외)

어휘 (활용형)	수량		어휘 (활용형)	수량	
	『개역 한글』	『개역 개정』		『개역 한글』	『개역 개정』
가라사대	782	0	-	0	0

12) 『개역한글』의 '가라사대'는 대부분 '이르시되'로 바뀌었으나, '말씀하시되'(암 1:3 등 20회), '…의 말씀이니라'(렘 16:14 등 14회)로 바뀐 사례도 있다. 드물게는 '이르시기를'(출 33:21 등), '말씀하시기를'(행 2:17 등)로 바뀌었다.

13) '-기를'은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는 않다. 명사형 전성어미 '-기'에 목적격조사 '를'이 붙은 결합체이다.

어휘 (활용형)	수량		어휘 (활용형)	수량	
	『개역 한글』	『개역 개정』		『개역 한글』	『개역 개정』
가로되	1,912	0	-	0	0
이르되	997	2,869	이르기를	630	613
이르시되	495	1,223	이르시기를	84	82
말하되	213	286	말하기를	345	380
말씀하시되	138	160	말씀하시기를	69	101
대답하되	171	163	대답하기를	18	18
고하되	99	2	고하기를	38	2
합계	4,807	4,703	합계	1,184	1,196

‘-(으)되’ 등은 100개 남짓한 용례가 줄어들었고, ‘-기를’은 미미하게나마 용례가 늘어났다.[14] 따라서 옛 말투 어미의 전체 수량이 줄어드는 경향을 짚을 수 있다. 물론 전체 수량에서는 여전히 ‘-(으)되’가 ‘-기를’보다 훨씬 많다는 점도 함께 짚어야 할 것이다.

그 밖에, 위의 도표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연결어미를 종결어미로 바꾸어 문장을 끊은 사례가 몇몇 있었다. 예문은 다음과 같다.

① ㄱ. 크게 종용히 한 후에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여 **가로되**(『개역한글』, 행 21:40)
ㄴ.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개역개정』, 행 21:40)

연결어미를 종결어미로 바꾼 것은 옛 말투 유무와 직결되지는 않는다. ①ㄴ의 종결어미 ‘-니라’는 옛 말투이므로 일단은 예스러움이 유지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15세기 국어에서는 한 문장의 길이가 오늘날보다 훨씬 더 길었으므로,[15] 그 점을 생각하면 문장이 짧아질수록 옛말의 특성에서 멀어진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물론 문장 차원의 개정 사유가 문체의 전통보다 더 중요한 경우에는 문장을 끊어야 하겠으나, 그것이 문체에 영

14) 어휘 차원의 변화는 <표 3>에 반영되지 않았다. 예컨대 『개역한글』 ‘고하되’는 ‘고하기를’로 바뀐 것이 아니라 ‘아뢰되’로 가장 많이 바뀌었고(삼하 9:3 등), 그 밖에 ‘말하되’(왕상 18:43 등), ‘아뢰어’(수 10:12) 등으로 바뀌었다.

15) “중세국어에서 문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單文은 주로 夾注에만 쓰였을 뿐 그 외에는 거의 없으며 重文과 複文이 서로 뒤얽힌 복잡한 구조를 가졌다는 점이다.” 안병희, 이광호, 『중세국어문법론』 (서울: 학연사, 1990), 330-331.

향을 미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3.2. 인용 구문 이외의 '-(으)되'

인용 구문 이외의 '-(으)되'가 겪은 변화는 크게 셋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옛 말투가 약화된 것(예스럽지 않은 어미로 바뀜, 어미 전체가 사라짐), 두 번째는 옛 말투가 유지된 것(다른 옛 말투 어미로 바뀜), 세 번째는 옛 말투가 강화된 것(새로 나타난 것 등)이다.

먼저, 옛 말투가 약화된 사례 중에서 다른 어미로 바뀐 사례 몇몇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② ㄱ.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개역한글』, 마 19:26)
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개역개정』, 마 19:26)

③ ㄱ.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개역한글』, 암 8:12)
ㄴ.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개역개정』, 암 8:12)

예문 ②와 ③은 '-(으)되'가 예스럽지 않은 연결어미로 바뀐 사례이다. ②처럼 어미만 바뀌기도 하고 ③처럼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뀌기도 하였다. '-(으)되'는 '-(으)나' 또는 '-(으)니'(수 19:49 등)로 바뀐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그 밖에 '-아/어'(욘 4:5 등)나 '-는데도'(합 1:13), '-다가'(레 14:22)로 바뀐 사례도 있었다.

옛 말투가 약화된 사례 중에서 어휘 전체가 사라진 사례도 있다.

④ ㄱ. 오호라 학대 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개역한글』, 전 4:1)
ㄴ. 보라 학대 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개역개정』, 전 4:1)

⑤ ㄱ. 또 여호와의 앞 곧 전 앞에 있던 놋단을 **옮기되** 새 단과 여호와의 전 사이에서 옮겨다가(『개역한글』, 왕하 16:14)
ㄴ.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개역개정』, 왕하 16:14)

예문 ④ㄱ의 '흘리되'는 히브리어 원문에는 없으나 문맥상 첨가했던 말이었고, ⑤ㄱ의 '옮기되'는 두 번 번역된 말이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 부분이 빠지면서 어미 '-(으)되'도 함께 사라지게 되었다. 어휘 차원의 사안이 어미의 적절성 여부보다 더 중요했던 개정 사례로 보이나, 어휘 개정이 어미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예컨대 ④에서는 옛 말투 종결어미인 '-로다'가 새로 나타났으므로 절 전체에서는 예스러움이 유지된 셈이다.

다음은 옛 말투가 유지된 사례이다.

⑥ ㄱ.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 떼의 오백분지 일을 여호와께 **드리게 하되**(『개역한글』, 민 31:28)
ㄴ.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 떼의 오백분의 일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개역개정』, 민 31:28)

예문 ⑥은 옛 말투 종결어미로 바뀐 사례이다. 문장의 길이가 짧아지기는 하였으나(앞의 3.1. 예문 ① 및 관련 설명 참조), 여기서는 일단 옛 말투가 유지된 것으로 처리한다.

한편, 옛 말투가 강화된 사례 — 전에 없었던 '-(으)되'가 새로 생겨난 사례 — 몇몇은 다음과 같다.

⑦ ㄱ.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개역한글』, 잠 23:23)
ㄴ.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개역개정』, 잠 23:23)
⑧ ㄱ.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개역한글』, 유 1:23)
ㄴ.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개역개정』, 유 1:23)

예문 ⑦은 어미만 바뀐 예이고, ⑧은 어휘 전체가 바뀐 예이다. 위의 예문 외에도 '-(으)니'가 '-로되'로 바뀌는(고전 1:17) 등의 사례가 더 있었다. 이러한 사례가 많지는 않았으나, 문맥에 맞는다면 옛 말투 어미가 더 늘어날 수도 있음을 보여 준다. 다른 곳에서 옛 말투 어미가 사라지는 일이 많으므로, 이처럼 새로 늘어나는 사례가 있다면 『개역』 계통의 문체를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4. 수량 변화가 적은 어미

4장에서는『개역한글』과『개역개정』사이에 수량 변화가 적은 어미를 살펴보겠다. 수량이 늘어난 어미는 3장에서 다루었으므로 이곳에서 다루는 어미는 모두 수량이 줄어든 어미이다. 그러나 줄어든 비율이 10% 이하인 어미들을 여기서 살펴보겠다. 한편, 전체 용례 수가 100개 미만인 것은 변화 비율보다 절대 수량이 적다는 점이 더 중요하므로 그러한 어미들은 5장에서 살펴보겠다. 요컨대, 옛 말투라도 쓰임새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 어미들을 여기서 살펴보기로 한다. 이에 속하는 어미는 '-거늘/어늘', '-거니와/어니와', '-나니', '-노니', '-(으)ㄴ즉', '-(으)ㄹ새', '-(으)ㄹ지니', '-(으)매', '-(으)사'까지 아홉 종류이다.

각 어미들의 변화 양상은 앞서 3.2.에서 본 것처럼 크게 세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첫 번째는 옛 말투가 약화된 것(예스럽지 않은 어미로 바뀜, 어미 전체가 사라짐), 두 번째는 옛 말투가 유지된 것(다른 옛 말투 어미로 바뀜), 세 번째는 옛 말투가 강화된 것(평범한 어미가 예스러운 어미로 바뀜, 예스러운 어미가 새로 나타남)이다.

4.1. '-거늘/어늘'

'-거늘/어늘'은『개역한글』과『개역개정』사이에 388개에서 373개로 약 4%쯤 줄었다. '-거늘'만으로는 346개에서 369개로 늘어난 것처럼 보이나, 그 이형태인 '-어늘'은 대부분 '-거늘'로 바뀌면서[16] 42개에서 3개로 줄었으므로, 이형태를 아우른 전체 수량은 줄었다.

변화 양상은 옛 말투의 약화 또는 유지로만 나타난다. 옛 말투가 강화된 사례는 찾지 못했다. 먼저 옛 말투가 약화된 사례 몇몇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⑨ ㄱ.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사 백체를 **이루셨거늘**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개역한글』, 욥 10:8)
ㄴ.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개역개정』, 욥 10:8)

⑩ ㄱ.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여늘** 나여늘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 (『개역한글』, 사 51:12)

16) 다르게 바뀐 경우도 있다. 연결어미 '-(으)며'(호 9:8)로 바뀌기도 하고, 종결어미로 바뀌어 문장이 끝나기도 했다(욥 6:14).

ㄴ.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 (『개역개정』, 사 51:12)

예문 ⑨는 예스럽지 않은 연결어미로 바뀐 사례이다. 위에 보인 것 외에도 '-(으)며'(삿 5:17), '-(으)면서'(수 9:22), '-거든'(렘 49:12)으로 바뀐 사례도 있었다. ⑩은 어미 전체가 사라진 사례이다.

한편, 옛 말투가 유지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⑪ ㄱ.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하므로 양식이 **많아지거늘** 혹 불의로 인하여 가산을 탕패하는 자가 있느니라(『개역한글』, 잠 13:23)
ㄴ.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개역개정』, 잠 13:23)

⑫ ㄱ. 피곤한 자 곧 전능자, 경외하는 일을 폐한 자를 그 벗이 불쌍히 여길 **것이어늘**(『개역한글』, 욥 6:14)
ㄴ.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개역개정』, 욥 6:14)

위의 ⑪은 옛 말투 연결어미로, ⑫는 옛 말투 종결어미로 바뀐 사례이다. ⑪과 같은 사례는 『개역』 계통 역본의 고풍스러움을 유지하면서도 문맥에 맞는 더 좋은 연결어미로 바꿀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개역』의 문체를 계승하는 개정 작업에서는 이와 같은 방식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4.2. '-거니와/어니와'

'-거니와/어니와'는 『개역한글』과 『개역개정』 사이에 273개에서 268개로 미미하게 줄었다. '-거니와'만 보면 253개에서 267개로 늘어난 것처럼 보이나, 그 이형태인 '-어니와'는 대부분 '-거니와'로 바뀌면서[17] 19개에서 1개로 사라졌으므로, 이형태를 아우른 전체 수량은 조금 줄었다.

전체 수량의 변화는 미미하나 변화 양상은 다양하다. 옛 말투의 약화, 유지, 강화로 보이는 사례가 모두 보인다. 각각의 변화 수량은 적지 않았으나, 줄어든 수량과 늘어난 수량이 비슷한 까닭에 전체 수량은 예전과 비슷하게 되었다.

옛 말투가 약화된 사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17) 종결어미 '-느니라'로 바뀌어 문장이 끝나기도 했다(슥 8:10).

⑬ ㄱ.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매 시내가 **넘쳤거니와**(『개역한글』, 시 78:20)
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개역개정』, 시 78:20)
⑭ ㄱ. 당신이 **목도하시거니와** 우리는 많은 중에서 조금만 남았사오니(『개역한글』, 렘 42:2)
ㄴ.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개역개정』, 렘 42:2)

예스럽지 않은 어미 중에서는 ⑬처럼 '-(으)나'로 바뀐 것이 가장 많았으며, '-지만'(전 2:14 등)으로 바뀐 것도 있었다. ⑭처럼 연결어미 전체가 사라진 사례에는 어휘 또는 문장 차원의 중요한 개정 사유가 있었겠으나, 그 결과 문체에도 변화가 생겼다.

한편, 옛 말투가 유지된 사례 몇몇은 다음과 같다.

⑮ ㄱ.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개역한글』, 삼상 26:10)
ㄴ.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개역개정』, 삼상 26:10)
⑯ ㄱ.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개역한글』, 잠 12:1)
ㄴ.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개역개정』, 잠 12:1)

예문 ⑮는 '-거니와'가 '-노니'로, 예문 ⑯은 '-나니'가 '-거니와'로 바뀐 사례이다. ⑮에서는 앞쪽 구절이 상당히 달라졌으나 예스러운 다른 어미를 써서 『개역』 계통의 문체를 유지하였다. ⑯에서는 어간은 그대로 두고 어미만 바뀌었다. 문맥상 '-거니와'가 더 알맞다고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18] 그 밖에 앞서 4.1.에서 보았듯 '-거늘'이 '-거니와'로 바뀐 것 또한 예스러운 어미들 안에서 서로 바뀐 사례에 속한다.

끝으로, 옛 말투가 강화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18) '-노니', '-나니'와 '-거니와'가 서로 바뀐 사례는 위의 것을 포함하여 모두 17개에 이른다. 거니와→노니: 삼상 20:21; 26:10, 16; 28:10; 29:6, 삼하 2:27; 렘 38:16. 거니와→나니: 사 31:1. 나니→거니와: 느 5:10; 잠 12:1, 3; 13:12. 노니→거니와: 겔 20:3; 행 20:26; 고전 11:18; 고후 5:11; 계 2:9.

⑰ ㄱ. 당신의 기별하신 말씀을 내가 **듣고** 내 백향목 재목과 잣나무 재목에 대하여는 당신의 바라시는대로 할찌라(『개역한글』, 왕상 13:23)
ㄴ.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재목과 잣나무 재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개역개정』, 왕상 13:23)

⑱ ㄱ.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개역한글』, 호 14:9)
ㄴ.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개역개정』, 호 14:9)

예문 ⑰은 평범한 '-고'가 예스러운 '-거니와'로 바뀐 사례이다. 예문 ⑱에서는 끊어져 있던 문장을 이으면서 '-거니와'가 나타났다. 이러한 사례가 많지는 않으나, 옛 말투 연결어미가 더 늘어날 수도 있음을 보여 준다.[19]

4.3. '-나니'

'-나니'는 『개역한글』과 『개역개정』 사이에 1,032개에서 990개로 약 4% 쯤 줄었다. 먼저, 옛 말투가 약화된 사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⑲ ㄱ.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내 심령으로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고 **하나니** 이것도 헛되어 무익한 노고로다 (『개역한글』, 전 4:8)
ㄴ.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개역개정』, 전 4:8)

예스럽지 않은 어미로 바뀐 사례 중에는 '-(으)니'(욥 5:7 등)로 바뀐 것이 가장 많았으나, '-지만'(전 2:26), '-아/어'(사 45:4), '-(으)며'(고후 5:18)로 바뀐 사례도 있었다.

옛 말투가 유지된 사례 중에서 '-거니와'와 서로 바뀐 예는 앞서 ⑯에서 살펴보았으므로, 여기서는 종결어미로 바뀐 예문 일부만 보인다.

⑳ ㄱ.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나니**(『개역한글』, 사 28:20)

19) '-거니와'의 변화가 다양하고 수량도 많다는 것은, 개정에 참여한 이들이 이 어미의 기능을 친숙하게 여겨 적극 활용했다는 방증으로도 볼 수 있다. 『고려대한국어대사전』에서는 '-거니와'의 뜻풀이에 옛 말투라는 표현이 없다.

ㄴ.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개역개정』, 사 28:20)

다른 옛 말투 연결어미와 비교하여, '-나니'는 특별히 종결어미로 바뀐 사례가 많았다. 위의 ⑳처럼 '-느니라'로 바뀐 사례가 가장 많았으나, '-도다'(겔 7:6)로 바뀐 사례도 있었다.

옛 말투가 강화된 사례 몇몇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㉑ ㄱ.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개역한글』, 시 77:2)
ㄴ.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개역개정』, 시 77:2)
㉒ ㄱ. 그로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더면,(『개역한글』, 렘 20:16)
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더면, 좋을 **뻔하였나니**(『개역개정』, 렘 20:16)

㉑에서는 평범한 어미 '-(으)며'가 예스러운 어미로 바뀌었고, ㉒에서는 어휘가 새로 첨가되면서 '-나니'가 함께 생겨났다. 그 밖에 '-(으)니'가 '-나니'로 바뀐 사례가 있었다(신 22:7; 요 13:16 등).

4.4. '-노니'

'-노니'는 『개역한글』과 『개역개정』 사이에 606개에서 591개로 약 2% 남짓 줄었다. 먼저, 옛 말투가 약화된 사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㉓ ㄱ.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네 손에 **주었노니**(『개역한글』, 수 8:1)
ㄴ.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개역개정』, 수 8:1)
㉔ ㄱ.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개역한글』, 행 20:35)
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개역개정』, 행 20:35)

예스럽지 않은 연결어미로는 '-(으)니'로 바뀐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그

밖에 위의 ㉔처럼 옛 말투 연결어미가 사라지고 다른 표현으로 바뀐 것도 옛 말투의 약화 사례에 속한다.

옛 말투가 유지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㉕ ㄱ. 십 사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개역한글』, 갈 2:1)
ㄴ. 십사 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개역개정』, 갈 2:1)
㉖ ㄱ.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개역한글』, 몬 1:9)
ㄴ. 도리어 사랑으로써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개역개정』, 몬 1:9)

㉕는 연결어미 '-나니'로 바뀐 사례이며, 그 밖에 '-거니와'로 바뀐 사례도 있었다(각주 18번 참조). 『표준국어대사전』의 뜻풀이를 따르면 '-노니'는 '-나니'보다 엄숙한 말투로 쓰이므로,[20] '-나니'로 바뀐 것을 덜 엄숙하게 되었다고 본다면 옛 말투의 약화로 간주할 수도 있다. 한편 ㉖은 옛 말투 종결어미 '-노라'로 바뀐 사례이다.

옛 말투가 강화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㉗ ㄱ. 보라 주 여호와 내가 범죄한 나라에 **주목하여** 지면에서 멸하리라(『개역한글』, 암 9:8)
ㄴ.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개역개정』, 암 9:8)
㉘ ㄱ.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개역한글』, 롬 14:14)
ㄴ.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개역개정』, 롬 14:14)

위의 ㉗은 평범한 연결어미 '-아/어'가 옛 말투 '-노니'로 바뀐 사례이다. ㉘은 연결어미가 없었던 구조에서 '-노니'가 새로 생긴 사례이다. 이러한 사례는 드문 편이나, 옛 말투 연결어미가 더 늘어날 수도 있음을 보여 준다.

20) 15세기 국어에서는 주어가 1인칭이나 화자일 때('의도'를 나타낸다고 보기도 함) 선어말어미 '-오-'가 붙었다. 따라서 '-노니'와 '-나니'는 원래 문법 기능이 서로 달랐다.

4.5. ‘-(으)ㄴ즉’

‘-(으)ㄴ즉’은 『개역한글』과 『개역개정』 사이에 876개에서 819개로 약 6% 남짓 줄었다. 변화 양상은 옛 말투가 약화된 것이 대부분이며 옛 말투의 유지나 강화에 속하는 것은 드물게 보인다. 먼저, 옛 말투가 약화된 사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㉙ ㄱ.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개역한글』, 겔 47:7)
ㄴ.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개역개정』, 겔 47:7)

‘-(으)ㄴ즉’은 위의 ㉙처럼 ‘-(으)니’로 바뀌거나 ‘-(으)면’(롬 2:25 등)으로 바뀐 사례가 많았으며, ‘-아/어’(슥 8:3), ‘-(으)므로’(삿 6:32)로 바뀐 경우도 있었다.

옛 말투의 유지 및 강화에 속하는 사례 몇몇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㉚ ㄱ.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보장을 건축하며 은을 티끌 같이, 정금을 거리의 진흙 같이 **쌓았은즉**(『개역한글』, 슥 9:3)
ㄴ.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 같이, 금을 거리의 진흙 같이 **쌓았도다**(『개역개정』, 슥 9:3)
㉛ ㄱ.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러므로** 주는 광대하시니(『개역한글』, 삼하 7:22)
ㄴ.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개역개정』, 삼하 7:22)
㉜ ㄱ. 사람이 어떤 때는 궁창의 광명을 볼 수 없어도 바람이 지나가면 맑아지느니라(『개역한글』, 욥 37:21)
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개역개정』, 욥 37:21)

㉚은 옛 말투 종결어미로 바뀌어 예스러움을 유지한 사례이다. 다른 종결어미인 ‘-느니라’로 바뀐 사례(신 26:18)도 있었다. ㉛은 평범한 어미 ‘-(으)므로’에서 예스러운 어미 ‘-(으)ㄴ즉’으로 바뀐 사례이고, ㉜는 단어 전체가 새로 생긴 사례이다. 다만 이처럼 새로 생겨난 사례는 접속부사처럼 쓰이는 ‘그런즉’뿐이었으므로, 연결어미보다는 거의 어휘화한 ‘그런즉’[21]에 국

21)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그런즉’은 ‘그러한즉’이 줄어든 말로 풀이되어 있다. ‘그리고’, ‘그러면’ 같은 정식 단어는 아니지만, 사전의 한 항목으로 올라 있는 상태이다.

한된 현상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다.

4.6. '-(으)ㄹ새'

'-(으)ㄹ새'는[22] 『개역한글』과 『개역개정』 사이에 126개에서 122개로 3% 쯤 줄었다. 변화 양상은 옛 말투의 약화 및 유지에 속하는 것만 보이며, 강화에 속하는 것은 찾지 못했다. 이 어미는 4장에서 다루는 연결어미 중에서는 가장 적게 쓰였다. 주요 사례는 아래와 같다.

㉝ ㄱ. 다메섹에서 아레다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쌔**(『개역한글』, 고후 11:32)
ㄴ.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개역개정』, 고후 11:32)

㉞ ㄱ. 그 후 삼년만에 내가 게바를 심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십 오일을 **유할쌔**(『개역한글』, 갈 1:18)
ㄴ. 그 후 삼 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십오 일을 **머무는 동안**(『개역개정』, 갈 1:18)

㉟ ㄱ. 선지자 예레미야가 … 모든 백성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할쌔**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되 아멘, 여호와는 이 같이 하옵소서(『개역한글』, 렘 28:5-6)
ㄴ. 선지자 예레미야가 …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개역개정』, 렘 28:5-6)

예문 ㉝과 ㉞는 앞서 다루었던 옛 말투 약화 사례와 비슷한 양상을 보여준다. 한편, 예문 ㉟는 옛 말투 종결어미 '-니라'로 바뀌었는데, 바로 다음 문장의 가까운 곳에 '말하니라'가 또 나와서 동어 반복처럼 되었다. 동어 반복을 피한다면 더 매끄러울 것이다.

4.7. '-(으)ㄹ지니'

'-(으)ㄹ지니'는 『개역한글』과 『개역개정』 사이에 316개에서 308개로 미미하게 줄었다. 먼저, 옛 말투가 약화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22) 이 어미는 원래 관형사형 전성어미 '-(으)ㄹ', 의존명사 'ᄉᆞ', 특이처격조사 'ᄋᆡ'가 붙어서 만들어진 것이다. 전제나 원인을 가리키는 기능은 처격(처소부사격)과 관련된다.

㊱ ㄱ. 그는 그를 정하다 진단할 것이요 그는 그 옷을 **빨찌니** 정하려니와(『개역한글』, 레 23:37)
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개역개정』, 레 23:37)

예문 ㊱에서는 '-(으)ㄹ지니'가 평범한 연결어미 '-아서'로 바뀌었다. 또한 어미는 아니지만 현대식 표현인 '-(으)ㄹ 것이요'(계 11:5) 등으로 바뀐 사례도 있었고, 명령형 종결어미 '-라'(수 18:6 등)로 바뀐 사례도 몇몇 있었다.

옛 말투가 유지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㊲ ㄱ. 그들이 …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그 중에서도 그리 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 소유가 **될찌니**(『개역한글』, 레 25:45)
ㄴ. 그들이 …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 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개역개정』, 레 25:45)

예문 ㊲은 옛 말투 종결어미 '-(으)ㄹ지니라'로 바뀐 사례이다. 그 밖에, 어미는 아니지만 옛 말투를 포함한 '-(으)ㄹ 것이니라'(민 29:16 등)로 바뀐 사례가 있었다.

옛 말투가 강화된 사례 몇몇은 다음과 같다.

㊳ ㄱ.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개역한글』, 막 10:43)
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개역개정』, 막 10:43)
㊴ ㄱ.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개역한글』, 딤전 5:11)
ㄴ.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개역개정』, 딤전 5:11)

예문 ㊳은 평범한 연결어미 '-(으)니'가 '-(으)ㄹ지니'로 바뀐 사례이다. 예문 ㊴는 명령형 종결어미를 연결어미로 바꾸면서 '-(으)ㄹ지니'가 나타난 사례이다.

'-(으)ㄹ지니'는 옛 말투의 약화로 볼 만한 사례가 적었고, 다른 어미로 바뀌더라도 옛 말투를 유지한 사례가 많았다. 명령에 가까울 만큼 강한 당위를 뜻하는 이 어미의 특성을, 개정에 참여한 이들이 중요하게 다룬 결과로 보인다.

4.8. ‘-(으)매’

‘-(으)매’는 『개역한글』과 『개역개정』 사이에 1,616개에서 1,578개로 약 2% 남짓 줄었다. 먼저, 옛 말투가 약화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㊵ ㄱ. 저희가 … 기이히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개역한글』, 눅 24:41-43)
ㄴ. 그들이 …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개역개정』, 눅 24:41-43)

㊶ ㄱ. 내가 진리를 **말하매**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개역한글』, 요 8:46)
ㄴ.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개역개정』, 요 8:46)

예문 ㊵, ㊶은 다른 연결어미로 바뀐 사례이다. ‘-(으)매’는 ‘-(으)니’로 바뀐 사례가 가장 많았는데, ㊵에서는 한 문장 안에 ‘-(으)니’가 두 번 나오게 되었다. 동어반복을 피해서 다양한 어미를 겹치지 않게 쓴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아래 5.4. 참조). 그 밖에, ‘-(으)므로’(왕상 4:24), ‘-고’(슥 2:3), ‘-아/어’(시 107:17) 등으로 바뀐 사례도 있었으며, 어미는 아니지만 다른 현대식 표현인 ‘-ㄹ 때에’(고전 10:27)로 바뀌기도 하였다.

옛 말투가 유지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㊷ ㄱ.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매**(『개역한글』, 렘 52:3)
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개역개정』, 렘 52:3)

위의 ㊷는 옛 말투 종결어미로 바뀐 사례이다. 이러한 사례는 많지 않았다. 끝으로, 옛 말투가 강화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㊸ ㄱ. 그 후에 에브라임이 그 아내와 **동침하였더니** 아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개역한글』, 대상 7:23)
ㄴ.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매**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개역개정』, 대상 7:23)

예문 ㊸은 ‘-(으)매’로 바뀐 결과 ‘-(으)니’가 가까운 곳에 반복되었던 어

색함이 개선된 사례이다. 옛 말투 어미의 다양성이 감소하면 문장이 단조로워지거나 동어 반복 표현이 생기기 쉬워진다. 적절한 곳에서는 옛 말투 어미를 새로 넣음으로써 더욱 매끄러운 표현으로 다듬을 수 있겠다.

4.9. '-(으)사'

'-(으)사'는 본래 선어말어미 '-(으)시-'와 연결어미 '-아/어'가 결합한 것이다. 구성 요소 각각은 현대어에도 널리 쓰이는 것이나, 그것이 결합한 결과는 예스러운 느낌을 지닌다.

『개역한글』에서는 예스러운 결합형인 '-(으)사'만이 쓰였다. 그러나 『개역개정』에서는 현대어에 가까운 '-(으)시어'가 새롭게 11회 나타났다. 이것으로도 변화의 흐름을 엿볼 수 있다.[23]

'-(으)사'는 『개역한글』과 『개역개정』 사이에 912개에서 867개로 5% 가까이 줄었다. 옛 말투의 약화 및 유지로 보이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㊹ ㄱ.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개역한글』, 신 10:18)
> 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개역개정』, 신 10:18)
> ㊺ ㄱ.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이키사**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권고하소서(『개역한글』, 시 80:14)
> ㄴ.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개역개정』, 시 80:14)

㊹는 옛 말투의 약화 사례이다. 예스럽지 않은 어미로는 '-(으)시'가 빠진 '-아/어'로 바뀐 사례가 가장 많았으나, '-(으)시고'(시 31:7), '-(으)시니'(삿 6:8), '-(으)시어'(창 28:20)로 바뀐 사례도 있었다. 그 밖에, '-(으)사'가 사라진 문장은 구조 전반이 크게 바뀌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㊺는 옛 말투 종결어미로 바뀌어 예스러움이 유지된 사례이다.

옛 말투가 강화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㊻ ㄱ.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23) '-(으)시어'도 조금 예스러운 느낌이 없지는 않다. 현대국어에서 널리 쓰이는 형태는 '-(으)셔서'이다.

(『개역한글』, 삼상 1:11)
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개역개정』, 삼상 1:11)

예문 ㊻은 '-시고'가 '-사'로 바뀐 부분과 '-사'가 '-시고'로 바뀐 부분이 함께 들어 있는 문장이다. 『개역한글』에서 '돌아보시고'와 '생각하시고'가 가까워서 동어 반복처럼 보이던 구조가 더 자연스럽게 되었다. 절 전체로 보면 옛 말투의 강화와 약화가 모두 나타났으므로 예스러움을 유지한 셈이다.

5. 수량이 적거나 대폭 줄어든 어미

5장에서는 총 수량이 100개 미만이거나, 『개역한글』과 『개역개정』 사이에서 수량이 대폭 줄어든 어미를 살펴보겠다. 요컨대, 쓰이는 범위가 좁아 보이는 어미들을 여기서 살펴보기로 한다. 이에 속하는 어미는 '-관대', '-러니', '-어든', '-(으)ㄴ대', '-(으)ㄹ지나', '-(으)ㄹ진대'까지 여섯 종류이다.

5.1. '-관대'

'-관대'는 『개역한글』에서 34회 쓰였으나 『개역개정』에서는 완전히 없어졌다. 변화 양상은 옛 말투의 약화에 속하는 것만 나타나며, 옛 말투의 유지나 강화에 속하는 것은 없었다. 옛 말투의 약화를 보여 주는 개정 사례 몇몇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㊼ ㄱ.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개역한글』, 시 8:4)
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개역개정』, 시 8:4)
㊽ ㄱ.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네 손에 **있관대**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개역한글』, 삿 8:6)
ㄴ.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 안에 **있다는거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개역개정』, 삿 8:6)
㊾ ㄱ. 사람이 **무엇이관대**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관대** 의롭겠느냐(『개역한글』, 욥 15:14)
ㄴ.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개역개정』, 욥 15:14)

‘-관대’는 예문 ㊼과 같이 대부분 ‘-기에’로 바뀌었다. 그 밖에 예문 ㊽와 같이 예스럽지 않은 종결어미 ‘-냐’로 바뀌기도 하였고, 예문 ㊾와 같이 다른 어휘로 바뀌기도 하였다.

지금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예스러운 어미의 표준형으로 ‘-관데’만이 올라가 있고, ‘-관대’는 사라진 옛말로서 『우리말샘』에만 들어있다. 원래 ‘-관데’와 ‘-관대’는 별개의 어미가 아니며 15세기의 ‘-관ᄃᆡ’에서 이어진 것이다. 현대 사전의 처리를 따른다면 표기만 ‘-관데’로 고칠 수도 있었겠으나, 『개역개정』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24]

5.2. ‘-러니’

‘-러니’는 『개역한글』에서 5회 쓰였으나 『개역개정』에서는 1회만 남게 되었다. 변화 양상은 옛 말투의 약화와 유지에 속하는 것이 보인다. 먼저, 옛 말투의 약화에 속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㊿ ㄱ.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러니**(『개역한글』, 민 26:9)
ㄴ.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개역개정』, 민 26:9)

51 ㄱ. 시온의 아들들이 보배로와 정금에 **비할러니** 어찌 그리 …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개역한글』, 애 4:2)
ㄴ.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개역개정』, 애 4:2)

예문 ㊿은 ‘-(으)니’로 바뀐 사례이고, 예문 51은 연결어미가 아닌 다른 표현으로 바뀐 사례이다. 과거의 일을 회상하는 표현인 ‘-러(더)-’는 대부분 사라지게 되었다.[25]

옛 말투가 유지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24) 국립국어원의 ‘21세기 세종 계획’의 문어(文語) 말뭉치에서는 ‘-관대’가 15회, ‘-관데’가 5회 나타난다. 표준형으로 사전에 오른 ‘-관데’가 독자들에게 오히려 더 낯설거나 어색하다면 『개역개정』에 쓰이기 어려웠을 것이다.

25) ‘회상’ 기능이 있는 ‘-러니’를 ‘-(으)니’로 고친 경우, 의미 면에서 ‘회상’ 기능이 없어지는 것과 동시에, 문체 면에서는 예스럽던 어미가 보통의 어미로 바뀐다. 다시 말해서 의미와 문체가 동시에 바뀌는 변화이다. 일단 이 글에서는 문체에 집중하여 연결어미의 예스러움이 약화되었음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였다. 역사적으로는 선어말어미로 분석되었던‘-러(<더)-’의 문제이다.

㊷ ㄱ.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개역한글』, 삼하 1:23)
ㄴ.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개역개정』, 삼하 1:23)

예문 ㊷ㄴ은 『개역개정』에서 '-러니'가 쓰인 유일한 예이다. '-러니'는 본래 '-더니'의 이형태이므로,[26] 이곳 또한 '-더니'로 바꿀 수 있었겠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개역한글』과 『개역개정』 사이에서 '-러니'가 '-더니'로 바뀐 사례는 전혀 없었다.

5.3. '-어든'

'-어든'은 15세기 국어에서 '-거든'의 이형태였다. 그러나 현대 사전의 '-거든' 뜻풀이에는 옛 말투라는 설명이 없으며, 오늘날의 '-거든'은 새로운 용법(자랑하는 느낌의 종결어미)이 생길 만큼 널리 쓰이는 어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거든'을 옛 말투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어든'만을 논의 대상으로 삼는다.

'-어든'은 『개역한글』에서 9회 쓰였으나 『개역개정』에서는 5회만 남게 되었다. 변화 양상은 옛 말투의 약화와 유지에 속하는 것이 보인다. 먼저, 옛 말투의 약화에 속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㊸ ㄱ. 혹시 화목제물을 드리려 **합이어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개역한글』, 수 22:23)
ㄴ.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합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개역개정』, 수 22:23)
㊹ ㄱ. 가로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어든**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개역한글』, 눅 23:37)
ㄴ.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개역개정』, 눅 23:37)

예문 ㊸은 '-거든'으로 바뀐 사례이고, 예문 ㊹는 '-면'으로 바뀐 사례이다. '-어든'을 '-거든'으로 고친 ㊸은 기원이 닿는 표현으로 개정한 것이므

26) 15세기 국어에서는 서술격조사 '이-', 선어말어미 '-(으)리-' 뒤에서 ㄷ이 ㄹ로 바뀌는 음운 현상이 있었다. '-더니'가 '-러니'로 바뀐 것도 그러한 예이다. '-(으)ㄹ러니'는 기원상 '-(으)리러니'에서 온 것이다.

로, 옛 말투의 단순 소멸로만 여기기는 어렵다. 그러나 ㊹는 옛 말투 '-어든'이 명실공히 사라진 사례이다.

옛 말투의 유지에 속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㊺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개역한글』=『개역개정』, 눅 4:9)

예문 ㊺는 '-어든'이 그대로 유지된 사례이다. 『개역개정』에서 '-어든'이 쓰인 곳은 모두 '아들이어든'이었다. 국어의 음운 및 문법 면에서는 앞의 ㊸, ㊹와 그리 다를 바가 없다. '아들이어든'을 특별히 그대로 둔 까닭은 국어 방면 외의 문제로 보인다.

5.4. '-(으)ㄴ대'

'-(으)ㄴ대'는 『개역한글』과 『개역개정』 사이에 95개에서 39개로 59% 가까이 줄어들었다. 10개 미만의 극소수 어미를 제외하고는 가장 심하게 줄어든 어미이다. 그 결과 『개역개정』에서는 '-(으)ㄹ진대'와 순위가 바뀌어 그보다 더 적게 나타난 어미가 되었다.

변화 양상은 옛 말투의 약화, 유지, 강화에 가까운 것이 모두 보인다. 먼저 옛 말투의 약화 및 유지에 속하는 예는 다음과 같다.

㊻ ㄱ.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신대**(『개역한글』, 눅 8:32)
ㄴ.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개역개정』, 눅 8:32)

㊼ ㄱ.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개역한글』, 출 14:21)
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개역개정』, 출 14:21)

예문 ㊻에 보인 것처럼, '-(으)ㄴ대'는 거의 모두 '-(으)니'로 바뀌었다.[27] 개정된 부분만 본다면 별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으)니'는 『개역』 계통 역본에서 흔히 쓰이는 어미이므로, 일부 문맥에서는 가까운 곳에 '-(으)니'가 또 쓰이는 동어반복이 생길 수도 있다(위 4.8. 참조).[28] 원문의

27) '-(으)ㄴ대'가 개정된 58개 사례 중에서 57개 사례가 '-(으)니' 및 '-더니'(창 17:3)로 바뀌었다.

반영과 이해에 문제가 없다면, 여러 다른 어미들을 고려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예문 ㊼은 옛 말투 어미인 '-(으)매'로 바뀐 사례이다. 옛 말투 안에서 바뀌었으므로 예스러운 문체가 유지된 사례이다.

옛 말투가 강화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㊽ ㄱ.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개역한글』, 마 19:20)
ㄴ.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개역개정』, 마 19:20)

예문 ㊽은 어미 '-(으)니'가 '-(으)ㄴ대'로 바뀌었다. 이러한 사례는 매우 드물지만(마 19:27에도 한 예가 더 있음), 옛 말투 어미가 늘어날 수도 있음을 보여 준다.

5.5. '-(으)ㄹ지나'

'-(으)ㄹ지나'는 『개역한글』 및 『개역개정』에서 단 1회만 쓰인 연결어미이다. 용례는 다음과 같다.

㊾ ㄱ.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찌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단에 올리지 말찌며(『개역한글』, 레 2:12)
ㄴ.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개역개정』, 레 2:12)

한글 맞춤법 규정(제53항)을 따라 'ㅉ'을 'ㅈ'으로 고친 것 외에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개정 참여자들이 보기에 이 어미의 기능이 문맥상 자연스럽다고 판단했기에 그대로 유지되었을 것이다. 극소수 어미가 사라지지 않은 독특한 사례이다.

---

28) '-(으)니'는 옛 말투 연결어미를 평범한 연결어미로 바꾼 결과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어미였다. 글쓴이가 찾기로는, ㉠나니→(으)니: 창 27:42; 욥 5:7; 엡 2:8 등 10여 회, ㉡노니→(으)니: 수 8:1; 행 28:20; 고전 4:17 등 6회, ㉢(으)ㄴ대→(으)니: 창 17:3; 마 8:3; 눅 8:32 등 50여 회, ㉣(으)ㄴ즉→(으)니: 창 44:29; 겔 47:7; 롬 5:1 등 10여 회, ㉤(으)매→(으)니: 창 1:3; 슥 1:21; 눅 24:42 등 30여 회의 용례가 있었다.

5.6. ‘-(으)ㄹ진대’

‘-(으)ㄹ진대’는 『개역한글』과 『개역개정』 사이에 68개에서 61개로 10% 남짓 줄어들었다. 이 어미는 전체 수량이 그리 많지는 않으나, 대폭 줄어든 것도 아니다. 그 결과 『개역개정』에서는 ‘-(으)ㄴ대’와 순위가 바뀌어 그보다 더 많이 나타난 어미가 되었다. 5장에서 다루는 연결어미 중에서는 가장 널리 쓰인 어미이다.

변화 양상은 옛 말투가 약화된 것(예스럽지 않은 어미로 바뀐 것) 한 가지뿐이다. 새로 나타나는 등등 다른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사례는 다음과 같다.

> ⑹⓪ ㄱ.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주야의 약정이 서지 아니할 수 있다든지 천지의 규례가 정한대로 되지 아니할 수 있다 **<u>할찐대</u>**(『개역한글』, 렘 33:25)
> 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u>아니하였다면</u>**(『개역개정』, 렘 33:25)
> ⑹① ㄱ. 미가야가 가로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u>될찐대</u>**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개역한글』, 대하 18:27)
> ㄴ.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u>된다면</u>**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개역개정』, 대하 18:27)
> ㄷ.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u>될진대</u>**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개역개정』, 왕상 22:28)

예문 ⑹⓪에서는 ‘-(으)ㄹ찐대’가 ‘-다면’으로 바뀌었다.[29] ‘-(으)ㄹ진대’는 주로 앞 절의 일을 인정하는 맥락에 쓰이는 반면 ‘-다면’은 주로 사실성이 약한 가정에 쓰이므로, 이 문장에서는 비록 예스러움이 약화되더라도 고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한편, 예문 ⑹①은 거의 같은 구문의 개정 결과가 서로 다른 사례이다. 역대하 18:27에서는 ‘될찐대’가 ‘된다면’으로 바뀌었으나, 열왕기상 22:28에서는 그대로 남았다. 연결어미의 일관성 면에서는 아쉬움이 남는 사례이다.

『개역개정』에서 ‘-(으)ㄹ진대’가 늘어난 사례는 없었다. 『표준국어대사전』의 뜻풀이를 따르면 ‘-(으)ㄹ진대’는 예스러울 뿐만 아니라 장중한 어감

29) ‘-(으)ㄹ진대’ 대부분은 ‘-다면/라면’으로 바뀌었으나, ‘-려면’(마 8:31)으로 바뀌기도 하고 ‘-ㄹ지라도’(욥 17:14)로 바뀌기도 하였다.

을 띤다. 전체 수량이 적은 편이라도 독특한 어감이 있기에 고유의 가치가 있다. 앞 절의 내용이 강한 사실성을 지니면서 장중한 느낌이 어울리는 곳이라면[30] 평범한 '-(으)면' 대신 '-(으)ㄹ진대'가 더욱 어울릴 수도 있을 것이다.

6. 맺음말

『개역한글』이 『개역개정』으로 개정되면서, 옛 말투 연결어미의 종류는 16가지에서 15가지로 전보다 줄어들었다. 전체 수량은 단순히 계산하면 늘어난 것처럼 보이나, '가라사대→이르시되'의 변화를 제외하면 사실상 줄어들었다. 연결어미에 관한 한, 『개역』 계통 역본의 예스러운 문체는 조금 약화된 셈이다.

물론 여러 연결어미들이 개정된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평범한 연결어미가 옛 말투 연결어미로 바뀜으로써 예스러운 표현이 늘어난 사례도 찾을 수 있었다. 다만 그러한 경우는 적은 편이다.

옛 말투 어미의 쓰임새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에 둔다면, 적재적소의 문맥에서는 그러한 어미를 써 주는 것이 『개역』 계통의 문체를 잘 살리는 길이기도 하다. 옛 말투 어미가 지닌 장중하고 근엄한 분위기는, 하나님의 주권, 영광, 위엄 등을 표현하는 데에 더욱 잘 어울릴 수도 있다.

연결어미가 줄었다는 것은 동어반복이 벌어질 가능성을 높이기도 한다. 현대 구어체 느낌이 짙은 어미는 기존 문체와 어긋나기에 쉽사리 도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스러운 어미는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여 수가 줄어든다면, 문장 속에 쓰이는 어미가 다양하게 나타나기 어려워진다. 자칫하면 어색하거나 단조로운 문장이 될 수도 있다.[31]

물론 『개역』 계통의 성경이 국어사(國語史) 자료의 박물관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모든 옛 말투를 무조건 그대로 보존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상당수 옛 말투가 젊은 세대에게는 어렵게 느껴진다는 현실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예스러운 말이 모두 사어(死語)가 아니라면, 어떤 표현을 계

30) 국어에는 조건이나 가정을 나타내는 연결어미들이 여럿 있으며, 그 기능은 실현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세밀하게 나눌 수 있다. '-(으)면', '-거든'과 함께 예스럽거나 특수한 어미 '-(으)ㄹ진대', '-던들'까지 비교한 연구로는 윤평현, "국어의 접속어미에 대한 연구: 의미론적 기능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1989), 12-35 참조.

31) 예전의 개정 결과가 국어 면에서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왔던 바 있다. 김정수, "성경전서 개역개정판(감수용)에 대한 언어학적인 검토", 「성경원문연구」 2 (1998), 70-74.

승하고 어떤 표현을 고칠 것인지 일관성과 타당성 있는 판단 위에서 질서 있게 조정해야 바람직할 것이다.

지금 대한성서공회에서는『개역개정』의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개역』계통의 역본에 들어있는 옛 말투 연결어미는 지금까지 그리 많이 주목받지는 못했다. 연결어미를 비롯하여 고풍스러운 문체와 관련된 여러 방면의 검토가 충실하게 이루어진다면, 더 좋은 결과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Keywords)
국역 성경, 의고체, 고어, 활용어미, 문체.
Korean translations of the Bible, archaism, archaic, conjugation ending, style.

(투고 일자: 2025년 1월 31일, 심사 일자: 2025년 2월 20일, 게재 확정 일자: 2025년 4월 17일)

<참고문헌>(References)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국어사전편찬실, 『고려대한국어대사전』 전3권, 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9.

고영근, 『표준 중세 국어 문법론』, 서울: 집문당, 2020.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https://opendict.korean.go.kr/.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김정수, "성경전서 개역개정판(감수용)에 대한 언어학적인 검토", 「성경원문연구」 2 (1998), 70-74.

민영진,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이렇게 달라졌다』,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3.

안병희, 이광호, 『중세국어문법론』, 서울: 학연사, 1990.

윤평현, "국어의 접속어미에 대한 연구: 의미론적 기능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1989.

이기문, 『국어사개설』, 서울: 태학사, 1998.

전무용, "『개역개정』 성경 개정을 위한 문체 논의", 「성경원문연구」 50 (2022), 202-233.

<Abstract>

Changes in Archaic Connective Endings in the Korean Revised Version and the New Korean Revised Version

Seonggyu Choi
(GyeoremalKeunsajeon Committee)

In this article, I examine the changes of archaic connective endings between the KRV (Korean Revised Version) and NKRV (New Korean Revised Version) for the entire text of the KRV and NKRV (from Genesis to Revelation).

As the KRV was revised to the NKRV, the kinds of archaic connective endings decreased from 16 to 15 compared to the previous one. The 16 connecting endings are '-geoneul(거늘)', '-geoniwa(거니와)', '-gwande(관데)/gwandae(관대)', '-nani(나니)', '-noni(노니)', '-reoni(러니)', '-eodeun(어든)', '-ndae(ㄴ대)', '-njeuk(ㄴ즉)', '-doe(되)', '-lsae(ㄹ새)', '-ljina(ㄹ지나)', '-ljini(ㄹ지니)', '-ljindae(ㄹ진대)', '-mae(매)', and '-sa(사)'. Among them, '-gwande/gwandae' disappeared from NKRV.

The total quantity seems to have increased by simple calculation, but it has actually decreased except for the change of 'garasadae(가라사대) → ireusidoe (이르시되)'. In some details, there was also some examples changed to archaic expressions from ordinary expressions, but the quantity of such examples are small. Overall, as far as the connective ending is concerned, the antique style of the translation of the KRV filiation has slightly weakened.

Based on a deep understanding of the use of archaic conjugation endings, using such endings in the right context is also a way to make good use of the style of KRV filiation. The stately and solemn atmosphere of the archaic conjugation ending may be better suited to expressing God's sovereignty, glory, and dignity.

The decrease of connective conjugation endings also increases the likelihood of repetition of the same word. In a situation where an ending with a strong modern colloquial feel cannot be easily introduced because it conflicts with the existing style, and if the archaic ending is reduced due to insufficient utilization, it can makes awkward or monotonous sentences.

Of course, not all archaic expression are necessarily preserved and translators should also take into account the reality that many archaic expressions feel

difficult to the younger generation. However, if not all of the archaic words are dead, it would be more desirable to adjust the expressions in an orderly manner based on consistent and appropriate judgment on which expressions to inherit as it is and revise as necessary.

Currently, the Korean Bible Society is working on revising the NKRV. The archaic connective endings in the translation of the KRV filiation has not received much attention so far. If the review of various fields related to the archaic style, including the connective ending, is faithfully conducted, better results can be achieved.